



‘대세론’ 확산을 통해 당내 후보 선출을 우선 목표로 세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5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을 방문해 간 호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文 굳히기… 2위 싸움 치열

<재인>

달아 오르는 민주 경선

안희정 연일 중도층 겨냥 행보
이재명 선명성 강화 당심 잡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임박하면서 당내 경선이 불과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음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 흐름 속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낙마 이후, 안희정 충남지사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저력도 무시할 수 없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형국이다. 문 전 대표는 5일 서울의료원을 방문, “공공 의료를 강화, 의료 혜택을 강화하고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두 마

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날 대학생·청년 지지모임인 ‘하니문(MOON)’ 출범식과 모교 경희대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세몰이를 하며 대세론 확산에 나선 데 이은 현장 정책 행보다. 문 전 대표 측에서는 반 전 총장 사퇴 이후, 오히려 대세론이 확산되고 있는 흐름을 주목하며 소모적 논쟁을 자제하고 ‘준비된 후보론’으로 격차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반영하듯, 문 전 대표 측에서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발언으로 촉발된 ‘대연정’(大聯政) 논란과 관련, 더 이상 문제 제기에 나서지 않았다. 안 지사 측에서는 반 전 총장의 불출마로 중도와 합리적 보수, 충청표 등을 흡수한다면 ‘역전의 드라마’가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해 여당이 참여할 수도 있는 ‘대연정’을 주장하는 등 중도층을 겨냥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선 “한미 동맹 간에 합의한 것을 정권이 바꿨다고 뒤집으면 안보가 더 불안해진 다”는 등 기존 주장을 이어 갔다. 이 시장은 자신의 주무기인 ‘선명성’을 내세워 반전을 꾀하고 있다. 당장,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연정’ 발언과 관련, “역사와 촛불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공개 요구했다. 이 시장은 표면적 지지율과는 별개로 열성적 지지자를 중심으로 한 당심 확보를 통해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안 지사의 상승세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고 있다. 판세가 변화하는만큼 민주당 경선의 역동성 또한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 장관(맨 왼쪽)이 5일 오전 서울 중로구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孫 잡고… 제3지대 속도 낸다

<학규>

국민의당 ‘빅텐트’ 가시화

정운찬 연대 분위기도 고조
야권 ‘2월 빅뱅’ 초미 관심

국민의당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국민주권개혁회의 간의 통합작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정운찬 전 국무총리까지 연대에 동참할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야권 ‘제3지대’ 발(發) ‘2월 정계 빅뱅’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손 의장은 주말인 지난 4일 오전 회동을 하고, 두 시간 정도 통합에 대한 논의를 했다. 양측에서 합의 타결을 위한 막판 끝내기 수순에 돌입, 2월 중순께 통합이 완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경선을 마련에 손 의장 및 정 전 총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김영환 대선기획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대선기획단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손 의장과 정 전 총리가 얼마나 빠르게 우리와 결합해 안철수·천정배 전 대표 등과 경선을 치르느냐가 관심 사안으로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선 방식은 서로 존중하고 양보해 불리한 조건에 있는 후보가 주장하는 내용을 가능하면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당원을 중심으로 하는 경선은 불공정한 경선이 되기 때문에 완전 국민경선에 가까운 룰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손 의장 등과 통합 방식 등에 대해 오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한 뒤 7일 의원총회를 통해서도 당명 개정과 경선을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민의당에서 박 대표가 통합 협상의 전면에 나선 상황에서 안 전 대표는 손 의장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신중한 모습이다. 안 전 대표 측은 최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한 대선 캠프도 최소한의 규모와 인원으로 꾸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 전 총리는 지난 4일 자신의 고향인 충남 공주시 지역 기자들과 만나 “당분간 독자노선으로 갈 것이다”면서도 “생각이 같으면 누구와도 연대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과 연대에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대선후보 이르면 내달 13일 결정

잠정 경선일정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대선후보 경선을 이달 26일 시작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관리를 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월말~3월초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현재에서 인용되고 이에 따라 4월 26일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고 가정해 일정을 잡은 것이다. 이에 선관위는 2일 민주당에 공문을 보내 26일부터 3월 13일까지 경선관리를 위탁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이 안대로 진행된다면 선관위가 위탁을 맡은 다음달 13일까지는 1차 투표를 마칠 수 있다. 결선투표에 돌입하지 않는다면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더민주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4월 26일에 대선이 치러질 것을 가정으로 하고서 일정을 계산해 본 것이다”며 “경선 일정은 현재가 언제 탄핵안을 인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후보 경선을 호남, 영남, 충청, 수도권·강원·제주 등 4개 권역에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애초 전국 8~9개

지역에서 실시하려 했으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 시기의 유동성과 시간이 총분지 한다는 점에서 권역별 경선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역별 경선은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통해 실시된다. 선거인단은 이르면 이달 중반부터 콜센터와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현장 투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하되 일반 시민도 신청하면 가능하다. 권역별 투표 결과는 당일 현장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추진위원회 출범

국민의당은 지난 4일 서울 중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당 국가대개혁위원회(상임위원장 정동영) 출범식을 하고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또 국민의당 중심의 정권교체를 다짐했다. 국민의당은 출범식 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을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나라로 바꾸겠다”며 “임용제도·연공임금제도·특혜적 연금제도 등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을 재벌과 상속자의 나라

에서 창업자의 나라로 바꾸겠다”며 “재벌 총수의 전횡, 재벌가의 변칙 상속과 일감 몰아주기, 재벌 대기업의 독식과 산업 생태계 파괴 행위에 분노한다. 법을 고치고 시장 감독을 철저히 하고 불법 행위를 엄단해 재벌의 시장 농단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대한민국의 대의 민주제도는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 주권자의 권리가 빠짐없이 대표될 수 있게 선거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원 등 대리인들의 전횡을 근본적으로 견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출범식에서 안 전 대표는 “대한민국은 수출·내수·일자리·인구·외교 분야에서 5대 절벽,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며 “우리 당이 가장 앞장서 국가대개혁을 이뤄야 한다. 위기에 힘을 뿜을 문명 사명감과 역사인식을 갖고 대한민국을 바꾸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www.HanaTour.com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무안출발 추천 겨울여행!

홍콩 · 마카오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 충장점

☎ 062)228-1199

이달의 추천 여행 도시! 홍콩 · 마카오

캐주얼 CHPF07

초특가 필수기

홍콩.마카오.심천 4일 · 5일

899,000원~

현지 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선택경비 있음

2월 18일~25일 매주 수/토 총 3회

마카오 항공(NX 항공)

특식 3회(광동식, 암자식, 한식)

클래식 CHPF05

동반 아동 할인

홍콩(디즈니랜드).마카오 4일 · 5일

1,399,000원~

현지 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선택경비 있음

2월 18일~25일 매주 수/토 총 3회

마카오 항공(NX 항공)

특식 3회(포르투갈식, 점토담심, 한식)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여행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호금,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항공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여행상품 가격] 여행상품 가격은 일일 최저가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가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특이반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여하하나투어)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패키지(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창찬/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을 포함 상품과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참조해 주세요.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1 ●여행 유의 2 ●여행 자제 3 ●철수 권고 4 ●여행 금지